

안녕하십니까?

그간 내 컴에 야기됐던 내용들을 모두 설명한 것이기에 문의의 글이 예전보다는 겁니다.

글이 길다고 대충 보지 마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매우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

요즘 내 컴이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종료하면 단 번에 종료가 되질 않고 재부팅이 되고서야 종료가 되질 않나 USB가 제대로 인식되질 않아 짜증나게 하질 않나 가끔 컴을 켜면 화면이 깜깜하질 않나 DVD가 열리질 않고 버벅대질 않나...

이런 현상이 간헐적이나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급기야 주연에 문의를 했고 주연에서는 매번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고 해 주신 답변대로 시행해 봤으나 이렇다하게 나아졌다고 여길 수가 없을 정도로 내 컴의 증상이 예삿일은 아닌 듯 해 원인을 곰곰이 생각하다 전에 내가 임의로 컴 내부에 장착한 IDE 하드디스크가 뭔가와 충돌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제거하고 나니 USB가 전보다는 훨씬 인식이 잘 되고 종료시 재부팅 현상도 지금은 단번에 종료가 돼 이제 됐나보다 했는데...

증상: 1

얼마 전부터 컴이 부팅되면 마땅히 보여야 할 화면이 가끔 뜨질 않고 전원 인디케이터만 2~3초 간격으로 계속 깜빡거리면서 부팅될 때 나는 바람소리와 같은 소리만 깜빡거리는 주기에 맞춰 들리는 현상이 가끔 발생하다 며칠간은 그런 현상이

없다가 어제부터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어 모니터에 아무 것도 보이진 않고 컴은 켜지려다 말고 켜지려다 말고 하는 현상만 계속 반복되고 있어 껍갑한 마음에 궁여지책으로 전원 버튼을 컴이 꺼지지 않을 만큼만 잠시 누르고 있으면 빠링!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재부팅이 되고 화면이 보이고 컴은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이런 현상이 컴을 켤 때마다 발생되면 벌써 문의를 했을 텐데 랜덤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되다 안되다 해 어쩌다 그런 것이려니... 하면서 그냥 지냈었는데 오늘은 모니터가 깜깜해 전원 버튼을 잠시 누르니 빠링! 소리가 들리면서 부팅이 되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시동복구를 하라는 화면이 뜨기에 이건 뭐지? 하면서 시동복구를 시키니 한참을 확인한다고 파란 줄이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 시동복구를 하지 못 했다면 카메라나 mp3 등을 컴에서 제거한 후 다시 시도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컴 제조업체에 문의하라고 하면서 윈도우로 부팅이 됐고 컴을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헌데 난 컴에 오직 무선 마우스만 연결했으며 그 마우스는 1년을 넘게 사용한 것이라 그것 때문이라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다 여깁니다.

증상: 2

그리고 두어 달 전에 DVD플레이어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열리진 않고 몇 번 두둑! 두둑! 거리며 열리려다 마는 현상이 계속 발생돼 플레이어가 망가졌다는 판단으로 다른 플레이어로 바꿨고 바꾼 후 그런 현상은 없었는데 요즘 또 버튼을 누르면 제꺼덕 열리질 않고 잠시 굼뜨게 두둑! 거리다 열리곤 합니다. 마치 뭔가가 열리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말입니다. 열리지 못하게 막

거나 잡는 것은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 떼어 낸 기존의 플레이어를 USB로 연결해 작동시키니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됩니다. 디스크를 잘 읽어 내고 DVD동영상도 잘 재생시킵니다. 물론 USB로 연결한 탓인지 동영상에 가끔 버벅되는 경우는 있지만 고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리는 것도 제꺼덕 잘 열리고요.

결국 DVD플레이어도 하드웨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방증.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겨지는데...

주연 컴을 사용하기 전엔 약 15년 이상을 테크노마트에서 조립한 컴들만 몇 대 사용했고 현주 컴도 사용해 봤지만 위와 같은 문제는 전혀 없이 잘 사용해 왔기에 작금의 여러 현상에 대해 솔직히 황망하기만 합니다. 당시의 컴과 지금의 컴은 여러모로 다르겠지만 기술력은 그 때보다 훨씬 나아졌을 텐데 오류는 왜 더 많은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내가 PC를 배우고 다룬 게 OS가 DOS이고 윈도우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때인 94년부터이니 컴에 대해 완전초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어지간한 유틸리티는 비교적 잘 다루는 편이라고 자부(?)하기에 컴을 잘못 다뤘거나 레지스트리나 시스템에 엉뚱한 짓을 하진 않았지만 굳이 댄 짓을 했다고 한다면 전에 사용하던 IDE 방식의 하드디스크에 자료가 많아 버릴 수가 없어 마더보드에 연결해 두고 사용한 것 외엔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마저도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게 뭔가와 오랜 시간 충돌을 일으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건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아참! 주연 컴을 만난 지 얼마 안 돼 파워를 주연에 문의한 후에 용량이 더 큰 것으로 바꾼 것

도 있네요. 또 칩셋 그래픽카드가 마땅치 않아 NVIDIA GeForce GT 220으로 바꿨고요... 이 역시 주연 컴에 문의를 한 후 주연 컴의 조언을 참고해 바꿨습니다. 컴과 부품의 사양과 방식이 다르기에 임의로 아무 것이나 장착할 수가 없어 주연 컴에 문의는 필수라 여겼었지요.

그런 것들은 바꾼 지가 오래 되어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우길 수도 없겠고... 그것 참 ... ????

참고로 저는 윈도우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게 하질 않고 임의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설정해 뒀으며 어제 윈도우를 업데이트 했는데 한참동안 다운받고 구성한다면서 참으로 한참동안 몇 번을 컴을 재부팅해 가면서 업데이트 했습니다.

윈도우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설정해 두면 컴을 끌 때마다 뻑하면 업데이트 한다면서 컴을 끄지 말라 해 빨리 움직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닌 데다 컴을 켤 땐 윈도우를 구성한다면서 또 한참을 기다리게 해 성질 급한 나로선 자동설정을 수동으로 바꾸고 가끔 임의로 업데이트 시키곤 합니다만 한 번 업데이트 시키면 한 참을 업데이트 하고는 다음 번 컴을 켜면 구성한다고 또 한참을, 그리고 몇 번을 컴을 재부팅하는 바람에 그 짓도 못 해 먹겠습니다. ^^;

긴 글이라 짜증나시겠지만 나로선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으니 그 맘 헤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꺾뻑! ^^;